

서평

오스카 폰힌위버. 『고층 인도중세어 개괄, 개정증보 제2판』

[Oskar von Hinüber, *Das ältere Mittelindisch im
Überblick, 2. erweiterte Auflage*, Verlag der
Österreichische Akademie der Wissenschaften, 2001.
(344쪽: ISBN 3-7001-0761-7)]

강성용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I. 왜 십년이 지난 출간물의 서평을 쓰려고 하는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출간물에 대해 서평을 쓰는 일은 대부분 신간에 국한되는 것이 관행이다. 서평은 일반적으로 최신의 연구결과물을 소개하면서 동일 분야의 전공자인 서평자가 그 학술 출간물이 담고 있는 내용의 긍정적인 면과 한계를 지적하여 독자로 하여금 해당 분야에서 세부적인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지 못하더라도 적절하게 그 출간물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 어느 학문분야라고 하더라도 모든 세부 분야를 아울러 전문가가 될 수는 없으니,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제한으로 인해 선택적이 될 수밖에 없고, 모든 활동에서 기회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독자들을 위해 새 출간물에 대해 적절한 자리매김을 해 주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 맥락에서 보면, 해당 특정한 학술 출간물을 읽는 일 자체를 피하라는 권고를 담은, 내용상 흑평을 담은 서평의 경우

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서평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서평자의 판단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닌지라, 결국 판단은 독자의 몫이 된다는 한계는 피할 수 없겠지만 말이다. 굳이 2001년에 출간된 이 책(이하, *Mittelindisch*)의 서평을, 세부 전공으로 따지자면, 이 분야의 전공자도 아닌 필자가 제시하게 되는 맥락은 일반적인 상황과는 사뭇 다르다. 본 서평은 폰힌위버의 *Mittelindisch*를 소개하고 이 책이 왜 인도고전학과 불교고전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자료에 속하는지를 설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학계에서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알려지거나 활용되고 있지 못한 맥락과 사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리고 어떻게 미래의 연구자들이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용적인 정보와 제안들을 담고자 한다. 따라서 이 서평은 *Mittelindisch*의 세부 내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 무게중심을 두지 않고, 한국 학계에서의 수용 및 활용과 연관된 목적에 충실한 서술과 정보를 담고자 한다. 앞으로 소개하겠지만 *Mittelindisch*의 성격상 세부 항목의 서술 내용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는 것은 그 자체가 개별 주제에 대한 별도의 논문으로 다룰 만한 주제들이어서 내용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를 서평의 형태로 담는 것이 그다지 적합하지 않은 측면도 있음을 밝혀 둔다.¹⁾

이 뒤늦은 서평은 최근 한국학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심하게 지체되기는 했지만 점차 공유의 장을 넓혀 가고 있는 빠알리(Pāli) 전승에 대한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인식을 향한 논의에 발을 맞추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기도 하다.²⁾ 이 맥락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점이 하나가 있다. 그것은 바로 한국에서 인도중세어 연구가 빠알리에 편중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안에서도 경

1) 초판에 대한 서평이기는 하지만 노먼(K. R. Norman)의 서평(*BSOAS* 51.2 (1988) 358-359)도 구체적인 항목들 서너개에 대해 다른 언어학적 설명 가능성이 있다거나, 너무나 간략한 정보제공 형태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담는 정도이다. 또한 제2판에 대한 서평에서 베르거(H. Berger)가 지적하고 있듯이 (*JLJ* 46.1 (2003) 82-83) 초판에 제시된 개별 항목들에 대한 여러 서평들에서의 지적은 전체적인 틀에서는 거의 의미 없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제2판에서 폰힌위버가 해당 항목들을 다시 고려하여 반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2) 본 서평의 내용에 대한 한국 학계의 수용가능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대표적인 계기는 『불교학연구』 66호 (2021)에 실린 황순일, 심재관, 이영진의 글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글들은 아래 각주 9-11에서 각각 언급되고 있다.

전의 수용이나 주석전통 중심의 수행론의 재구성에 쏠려 있었다고 해서 한국에서 활동하던 모든 연구자들이 증세인도어에 대한 객관적인 상황인식 혹은 국제적인 연구성과의 수용을 해 내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만 이러한 인식을 가진 연구자들의 ‘상식’은 한국 학계에서 담론의 기본 전제인 ‘상식’으로 자리잡지 못했을 뿐이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학계 전반의 변화 국면에서 “증세인도어”라는 초기불교를 이해하고 다루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지평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를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본 서평의 의도이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한국 학계의 ‘상식’이 고양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우선 이 책의 저자 폰힌위버를³⁾ 필자의 관점에서 한 마디로 소개하자면, 인도중세어에 관한 모든 연구에서 최우선하여 그 사람의 작업을 찾아 확인해야 할 최고의 권위자 두 사람 중의 한 명이다. 다른 한 사람으로 필자가 꼽는 연구자는 영국 캠브리지대학에서 활동했던 노먼(Kenneth Roy Norman, 1925-2020)이다. 그리고 인도중세어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사전을 찾는 정도의 정보가 아닌 분석을 찾아 확인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딱 한 권의 참고자료를 택해야 한다면 필자가 주저 없이 꼽을 단 한 권의 책이 바로 이 *Mittelindisch*이다.

인도중세어의 개괄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꼽을 수 있는 자료라면 당연히 리할 피셀(Richard Pischel, 1849-1908)의 *Grammatik der Prakrit-Sprachen*(『쁘라끄

3) 사족이지만 정확한 이해를 위해 “폰힌위버”라는 이름에 대해 설명을 하겠다. “von Hinüber”라는 성에서 앞에 있는 “von”은 흔히 “귀족표기”(nobiliary particle)라고 부르는 요소인데, 프랑스어의 “de”(예로, de Gaul)나 네델란드어의 “van”(예로, van Gogh)처럼 조상(독일어, von)이나 출생지(독일어, zu)를 표시하는 전치사와 유사한 자투리말이다. 따라서 성이 “von Hinüber”이고 부를 때에는 예를 들어 “Prof. Dr. von Hinüber”라고 불러야 한다. 참고문헌 목록에 넣을 때에는 “v”에 배치하지 않고 “H”에 배치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Hinüber, Oskar von”처럼 말이다. 이것은 책 제목이 “The”로 시작하더라도 도서관 도서목록에서 “T” 아래 항목으로 할당하지 않는 것처럼, 변별력이 없는 요소를 무시하는 문헌목록 작성 원칙에 따르는 경우이다. 한국에 작업의 경우에는 통일된 원칙이 있지 않으니, 각 출간물의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하나의 방식에 따라 작성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가끔씩 “Oskar v. Hinüber”라는 약어 표현이 등장하기도 한다. 인도고전학이나 불교학에서 상당한 업적을 남긴 중국 출신 여성 학자인 Haiyan Hu-von Hinüber는 지금 언급되는 폰힌위버의 부인인데, 원래 중국어 이름은 “胡海燕”여서 남편의 성과 자신의 성을 연결시켜 사용하는 표기법을 택한 경우이다. 그래서 이 학자의 성은 “Hu-von Hinüber”이다. “후-폰힌위버”라고 한글표기를 해야 적절하리라 생각한다.

린어 문법』, 1900)과 빌헬름 가이거(Wilhelm Geiger, 1856~1943)의 *Pali Literatur und Sprache* (『빠알리 문헌과 언어』, 1916)⁴⁾를 꼽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저작이 모두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다시 말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1900년대 초반 이후 수많은 자료의 발굴이 이루어졌다. 아쇼카(Asoka) 왕이 조성한 새김글(inscription)들은 물론이고 간다리(Gāndhārī) 필사본의 방대한 자료들과 불교혼성쌍쓰끄리따와 여타 다양한 인도중세어에 관한 자료들이 발굴되고 정리되었다. 빠알리 분야에서는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각지에 산재하던 필사본 자료와 전통들이 알려지며 초창기에 연구자들이 생각하던 것과는 다른 빠알리 전승의 형성과정들이 본격적으로 연구되었다. 그런데 이 모든 다양한 사료의 종류들과 상이한 언어들에 아우르면서 인도중세어 전반을 아우르는 개괄적인 서술을 기대한다는 것은 큰 무리였다. 최소한 1986년까지는 그랬다. 1986년 폰힌위버는 이 책의 초판을 출간한다. 초판도 오스트리아 학술원에서 출간되었는데, 초판은 출간 직후 절판되는 상황을 맞았고, 그러다 보니 전문 연구자들에게도 원본을 구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운 자료로 남아 있었다.⁵⁾ 하지만 누구나 사용하는 기본 자료가 된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1986년의 *Mittelindisch*는 기존의 피셀이나 가이거의 저작과 달리 다양한 새김글(inscription) 자료들의 내용을 반영하고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결정적인

4) 이 책은 고쉬(Batakrishna Ghosh)가 영어로 번역해서 1943년 캘커타에서 출간했고, 나중에 노먼이 *A Pali Grammar*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다듬어서 개정판을 1994년에 옥스포드에서 출간했다. 노먼이 교정한 이 책이 바로 Pali Text Society의 빠알리 문법서이고, 빠알리 문법을 배우기 위한 기본자료라고 할 수 있다. 아직 도 책 등에는 저자로 가이거의 이름만 찍혀 있지만, 서지사항을 표기할 때에는 무척이나 긴 내용을 적어야만 하는데, 바로 이러한 역사적 사정 때문이다. 실제로 내용 면에서는 가이거가 최초로 펴냈던 것과는 판판인 항목들이 많다.

5) 유럽 대학들의 경우 지금은 미국식 학과 중심 편제가 강해지고 있고, “Bologna Process”라고 불리는 유럽 표준화를 지향하는 정치적 결정이 이를 가속화시키기도 했다. 그렇지만 여러 학과를 아우르는 단위, 예로 독일어권의 연구소 단위의 편제가 대학의 기본 단위로 자리잡고 있고, 이에 따라 중앙도서관과 다르게 각 분야별 전문도서관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학구성원들이 도서관을 활용하는 방식이 한국과는 다른 측면이 많다. 그래서 복사나 제본을 하는 문화가 강하지 않지만 대가급으로 인정받는 학자들까지 복사지를 묶어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바로 *Mittelindisch*의 초판이다. 이러한 교육제도를 가능케 하는 사회정치적이고 문화적인 배경은 곧바로 전혀 독자친화적이지 않은 출판문화와도 연관되어 있다. 이것의 장단점을 논하는 것과는 별개로 *Mittelindisch*의 서술방식과 내용은 이런 맥락 안에 놓여 있는 측면이 있다.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 책의 확장 개정판인 제2판이 2001년에 출간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의 서술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한 제2판을 기준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II. *Mittelindisch*의 구성과 그 함축

이 *Mittelindisch*가 “개괄”이라는 제목을 가진 것은 입문서에 그친다는 의미가 아니고, 방대한 자료들과 다양한 언어들에 아우르는 서술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개정판은 총 344쪽(초판 209쪽) 분량이고, 제1장에 9쪽 분량(초판 6쪽)의 “들어가는 말”(Einleitung)에서 인도중세어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제시한다. 뒤따르는 제2장에서 “자료”(Die Quellen)라는 제목 아래 현 시점에서 중세어를 다룰 때 사용 가능한 자료들의 개괄을 제시한다. 이 대목의 시작은 §13-31에서 “새김글”(Die Inschriften)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특히 중세어 연구에서는 새김글들이 중요하다. 필사본이나 구전전승과는 달리 최초 조성된 기록물이 물리적으로 그대로 보존된다는 특징과, 아쇼까(Aśoka) 새김글의 경우에는 각 기록이 남아 있는 지역의 언어양태(지역방언)를 반영한다는 특징점이 있음을 폰힌위버는 지적하고 있다. §14-21에서는 아쇼까 새김글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와 참고문헌들을 제시하고 있다. §22-30에서는 “후기 새김글”(Die jüngeren Inschriften)을 소개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는 우리가 인도미술사에서 익숙하게 보게 되는 “싼찌”(Sāñcī), “바룬”(Bhārhut), “마투라”(Mathurā) 등등의 지명이 언급되고(p.53f.), 뒤따르는 대목에서는 다른 지역에 소재하는 자료들도 소개되고 있다. §31에서는 “동전과 인장”(Münzen und Siegel)이 소개된다. 그리고 나서는 문헌 자료가 언급되는데, “종교 문헌”(§33-49) 아래 불교, 자이나교 문헌이 언급되고 “세속 문헌”(Die weltlichen Texte, §50-69)에는 예술 시, 희곡이 언급된다. 나중에는 “전통문법들과 사전들”(Einheimische Grammatiken und Wörterbücher, §61-69)이 소개된다. 이 맥락에서는 빠알리 문법서들, 뿌라

끄린(Prākṛt) 문법서들, 뿌라끄린 사전이 소개된다.

이렇게 자료의 소개를 맨 앞에 배치한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인도중세어 연구의 가능성과 한계를 규정하는 것이 바로 자료이기 때문이다. 인도중세어에 대한 이해를 얻고 학문적 논의의 맥락과 한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연구자들이 의식하고 있어야 하는 가장 기초적인 사항이 바로 자료의 상황이다. 예를 들어 아쇼카 새김글을 인용하자면 어느 지역의 어떤 기둥 혹은 바위에 새겨진 것을 누가 언제 읽어 냈거나 탁본을 뜬 것일⁶⁾ 자료로 삼아 누가 해독하고 그것을 누가 정리해서 누가 해석했는지 밝혀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저자는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자료의 맥락과 한계를 인지하고 있어야 하고, 독자는 이러한 저자의 주장이 가진 맥락과 한계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⁷⁾ 그래서 당연하게도, 초판과 제2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 자료의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용할 수 있는 언어자료가 확장되면 아예 새롭게 알게 되는 사실이 늘어나는 것뿐 아니라 기존의 논란이 되던 쟁점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이해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우선 수많은 새김글 자료들이 해독되고 해석되어 본격적인 연구가 가능해졌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리고

6) 인도의 새김글 조성 방식은 동북아의 비석문과 다르고 따라서 탁본 방식도 다르다. 고무로 탁본을 뜨는 것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또한 자연상태에 노출된 기록 자료들이 점점 닳게 되면서 시기에 따라 다른 해독가능성이 제시되는 것도 흔한 일이고, 해독자의 능력과 이해 정도에 따라 아예 다른 텍스트 구성이 이루어지는 것도 허다하다. 확정하기 힘든 여러 가능성들을 모두 해독 결과에 반영하기 어려운 사정은, 자료의 물리적인 마모와 보존 상태에서서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 사용된 문자들과 표기법의 문제와도 연관된다. 브라흐미나 카로스티문자의 표기법이 정형화되기 이전의 상황인 탓도 있지만, 발음과 표기의 완벽한 일치 불가능하다는, 역사상 모든 문자들이 피할 수 없는 한계가 개입되기도 한다. 예로 약하게 삽입되는 모음의 경우 한 음절을 구성하지 못한다고 간주될 때 표기의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가 문제가 되고, 자음의 반복이 이루어지는 경우 실제로 표기를 하는지 여부는 상당한 편차들이 있다. 따라서 아쇼카 새김글은 아직도 여전히 연구와 해독과 논쟁의 대상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7) 아쇼카 칙령을 원본에서 번역했다고 주장하는 한국어 출간물이 상당수 있다. 그 필자들은 “원본”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식을 하지 않은 채로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아쇼카 칙령에 대한 영어 번역을 베껴서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나마 외국어 연구서의 원본을 분명하게 밝히고 번역서를 출간하는 경우는 학자적인 기준을 지키는 경우라고 해야 할 것이다. 아쇼카 새김글에 대한 개괄을 파악하고 개별적인 유적들에 대한 상황과 연구자료에 대한 정보를 얻는 좋은 출발점은 팔크의 아래 책이다. Harry Falk. *Asokan Sites and Artefacts: A Source-book with Bibliography*. Monographien zur indischen Archäologie, Kunst und Philologie 18. Mainz am Rhein: Verlag Philipp von Zabern. 2006.

간다리 자료들이 대거 정리되어서 북서부 방언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달라졌다는 사실은, 필사본 자료 분야로 좁혀 본다면, 초판이 발간된 1986년 이후의 가장 큰 상황변화 중의 하나로 꼽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새롭게 발견되고 또 정리된 여타 문헌자료들과 금석학 자료들에 대한 연구결과들도 소개하고 내용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맥락은 초판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초판 들어가는말(Vorwort)이 첫 문장부터 피셀과 가이저의 작업을 언급하면서 시작하고 있는데(p.9), 폰힌위버는 이 두 업적들의 내용을 넘어서는 훨씬 많은 진전들이 학계에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작업을 대체할 작업이 예상가능한 미래(überschaubare Zukunft)에 나타날 것 같지 않다고 상황을 진단하면서, 이 앞선 두 작품을 토대로 해서 지난 70년간 얻어진 지식들을 종합해서 제시하고자 한다는 포부를 겸손하면서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초판 맨 앞쪽에서부터 *Mittelindisch*에서는 이전의 업적들과는 자료를 다루는 방식뿐 아니라 대상 영역을 설정하는 것에도 차이가 있다고 폰힌위버는 밝히고 있다 (p.10). 빠알리와 빠라끄릴은 “고층 중세인도어”(älteres Mittelindisch)안에 포괄하고 아빠브랑샤(Apabhraṃśa)는 제외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아빠브랑샤를 포함시키게 되면 초기 현대인도어(Neuindisch)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제3장은 “문헌전승의 인도중세어들”(Die Mittelindischen Sprachen der Literarischen Überlieferung)을 다루고 있는데 내용은 Pāli (§71-73), Ardhmāgadhī (§74-77), Māhārāṣṭrī (§78-82), Bhāṣā와 Vibhāṣā (§83-84), Śaurasenī (§85-88), Māgadhī (§89-91), Pāli에서 Māhārāṣṭrī로의 발전 (§92), Gāndhārī (§93-97), Paisācī (§98-102)로 분할되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풍부한 자료를 가지고 정확한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들은 맨 앞에 제시된 세 언어들인지라 인도중세어 연구는 불교와 자이나 전승의 상황과 얽혀 있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반영된 것이 바로 이 저작의 제목에 있는 “고층 인도중세어”라는 표현이다. 그리고 제4장 (§103-500)은 113-317쪽에 걸쳐 “인도중세어의 역사적 문법”(Historische Grammatik des Mittelindischen)을 다루는 장으로 제시된다. 이 부분은 중세인도

어의 음운론과 형태론을 역사적으로 다루는 부분이고 이 저작의 주된 부분이다. 이 부분의 서술이 음운론과 형태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채우고 있어서 각 단어 단위의 형태와 그 형태를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한 역사적인 변천 과정에 대한 논의들을 주로 담고 있는데, 빠니니문법 전통에서 보이는 방식이라고 할 수도 있다. 종종 구문론(syntax)이 왜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아예 다른 맥락과 다른 접근을 요구한다.⁸⁾

저술의 체제 면에서 본다면 *Mittelindisch*의 초판과 제2판 사이에 크게 바뀐 것은 없다. 하지만 구체적인 항목의 서술들에서는 새로 서술되거나 개정되어 제시된 내용이 꽤나 많다. 외형 면에서 크게 확장되고 바뀐 것이 두드러지는 것은 마지막에 있는 “찾아보기”(Index, 319-343쪽)이다. 찾아보기에는 24쪽을 할당하고 있다. 초판에서 201-207쪽에 그치던 찾아보기 부분이 대폭 확장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책의 사용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찾아보기 부분이 확장되는 것뿐 아니라 찾아보기가 세분화되어 제시되어 있어서 독자들이 해당 항목을 찾아보는 일에서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찾아보기의 편제는 “A. 항목 찾아보기”(A. Sachindex)에서는 다루어진 주제 별로 항목들을 개괄적으로 찾아볼 수 있고, “B. 다루어진 낱말 일람”(B. Verzeichnis der behandelten Wörter) 부분은 세부적으로 분할되어 있는데, 각 낱말의 출처 혹은 언어에 따라 구분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1. 아쇼까 새김 글; 2. 빠알리, 빠나 담마빠다; 3. 뿌라끄린; 4. 불교 쌍쓰끄리따; 5. 쌍쓰끄리따; 6. 기타 언어들로 항목들이 세분되어 있다. “C. 논의된 원전 출처”(C. Verzeichnis der behandelten Stellen)는 다루어진 원전 자료의 출처에 따라 정돈된 일반적으로 “index locorum”이라고 부르는 색인을 담고 있다.

8) 폰히위버의 마인쯔대학 박사논문이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논문은 뮌헨에서 『빠알리 격 구문론, 울장을 중심으로』(*Studien zur Kasusyntax des Pāli, besonders des Vinaya-piṭaka*. München: Kitzinger. 1968)라는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III. 독일학계의 맥락과 한국에서의 활용

한국에서 인도중세어에 관심을 갖는 경우는 대부분 빠알리에 국한된다. 그리고 이 빠알리에 대한 관심은 언어 자체라기보다는 “본다의 가르침이 그 원어로 담긴” 형태의 텍스트라는 과장 섞인 잘못된 설명에 따른 관심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빠알리에만 관심이 있을 뿐, 인도중세어에는 관심이 없는’⁹⁾ 연구자들이 대부분이다. 이는 실제로 특정한 교학전통, 즉 정통 테라바다 전통의 교학체계와 전승전통을 초기불교와 동일시하는 몰역사적인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¹⁰⁾ 한국 학계의 연구자들이 빠알리 텍스트, 그 중에서도 경전과 수행론을 중심으로 한 교학텍스트에 편중된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다 보니, 국제학계에서 이루어진 성과들을 소화하거나 공유하고 못한 채로 “갈라파고스 증후군”¹¹⁾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는 이 부분을 의식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 관심사와 관심분야가 다르다는 것이 부정확한 정보를 받아들인다거나 주장하는 일에 대한 정당근거가 되지 않는 못하기 때문이다.

폰힌위버의 작업은 독일전통에서 인도고전학 연구가 일반적으로 그러하듯, 인도유럽어 비교연구의 맥락 안에서 자라난 연구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잘 보여주는 것이 폰힌위버가 지나온 교육과정이다. 인도식으로

9) 이러한 태도가 왜 말이 안 되는 태도이며,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에 대해 앞서 논한 바가 있다. 강성용의 글 「뿔, 뿔리를 배운다고? 그게 되나? — 뿔리(Pāli)란 무엇이며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 『철학과 현실』(2004) 62호를 보라. 그리고 이러한 한국학계의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과 국제학계에서의 맥락에 대해서는 심재관. 「근대 초기불교 연구사의 한 단면 — 뿔리 근본주의의 등장과 변화」, 『불교학연구』 66호 (2021) 175-208을 보라.

10) Mittelindisch, p.67은 “우리가 아는 빠알리 전승은 거의 아누라다뿌라(Anurādhapura)의 Mahāvihāra에 자리잡은 정통 테라바다(Theravāda)에만 의존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몰역사성은 대부분의 교학전통이 공유하고 있는데, 교학이 곧 불교학과 동치되는 맥락이 아니라면 다들 만한 내용은 아니다. 개별 불교교학 전통들은 불교의 통일성과 단일성을 구축하는 나름의 체계를 만들어 내고 그것을 자신들의 정통성 주장의 근거로 삼는 만큼, 역사성이 사장된 맥락을 학문연구의 영역과 뒤섞을 필요는 없다.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황순일, 「랑카중심주의와 남방 테라와다(Theravāda) 불교」, 『불교학연구』 66호 (2021) 145-173을 참조.

11) 이영진, 「현대 한국에서 시도된 초기불교의 재구성: ‘갈라파고스 증후군’과 그 극복의 노력」, 『불교학연구』 66호 (2021) 209-239.

말해서 paramparā(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전승관계)가 그 사람을 보여준다는 말이다. 폰힌위버는 1939년생이다. 60년부터 튀빙엔(Tübingen)대학에서 H. Krahe, J. Untermann, W. P. Schmid 아래에서 인도유럽어 비교언어학을 공부했고, P. Thieme, G. Buddruss 아래에서 인도학을 배웠고, 라틴과 그리스어 문헌학과 슬라브문헌학, 고고학과 일본어를 배웠다. 63년에는 K. Hoffmann, J. Narten, B. Forssman이 있던 에어랑엔(Erlangen)대학에서 인도유럽어 비교언어학을 배우고 더불어 고대사, 철학을 공부했다. 나중에 64년부터 66년까지 G. Buddruss와 H. Bechert가 있던 마인쯔(Mainz)대학에서 인도학을 공부하고 H. Humbach 아래에서 인도유럽어 비교언어학을 배우고, W. Marg 아래에서 그리스어를 배웠다. 박사학위를 1966년에 마인쯔 대학에서 받았고,¹²⁾ 1973년 마인쯔 대학에서 교수자격 학위를 받았는데 교수자격 학위 논문에서는 쌍쓰끄리따와 싸까(Saka)어에 기반한 Saṃghāṭasūtra의 편집본을 만들고 번역과 주석을 달았다.¹³⁾ 폰힌위버가 학자로 성장하는 과정과 그가 사사한 학자들의 면면을 보면 지금 다루고 있는 *Mittelindisch*가 집필될 수 있는 맥락과 역사가 잘 드러난다. 나중에는 1981년부터 프라이부르크(Freiburg)대학 인도학 교수로 2006년까지 재직했다.

이 책은 중세인도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지만, 독자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자료임에 분명하다. 특히나 한국의 독자들에게는 더욱 그러한데, 우선 독일어로 되어 있어서 읽어낼 수 있는 독자가 많지 않다. 영어가 아닌 독일어로 저술을 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할 수도 있겠지만, 폰힌위버가 자리잡고 있는 학문의 맥락에서 고대 이란어나 코탄어도 아닌 독일어는 문헌학자라면 누구나 구사할 수 있어야 할 상식에 가깝다고 해야 한다. 한국의 연구자들이나 학생들이 놓여 있는 문화적 맥락과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문화적인 맥락의 차이는 일본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일본학계가 연구자수 면에서 압도적인 규모를 지니고 있음에도 아직 유럽 인도고전학계의 성취

12) 앞선 각주 8번을 보라.

13) Oskar von Hinüber. *Das Saṃghāṭasūtra. Ausgabe und kommentierte Übersetzung eines nordbuddhistischen Lehrtextes in Sanskrit und Sakisch.*

를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의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최근 몇몇 일본의 학자들은 개인적으로 이 유럽의 인도유럽어 연구 전통 안에서 교육받고 그 안에 편입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맥락에서 활동을 보여주는 학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불편함은 수용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Mittelindisch*의 구체적인 항목서술 중에 다루어지는 수많은 언어들의 수가 몇인지 세기도 어려운 저술을 만들어 내는, 역사비교언어학의 배경을 지닌 학계에서 이미 대가로 인정되는 학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소화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서술 중간 중간에 섞여 있는 라틴어 표현은 그나마 알파벳을 알아 볼 수 있겠지만, 그리스어문자를 섞어 놓는 대목에 가면 한국의 독자들에게는 어떤 장벽 같은 느낌을 주고 말 것이다. 지난 세대의 독일계 학자답게 *Mittelindisch*에서 폰힌위버가 제공하는 서술은 결코 독자의 편안함을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제 2판에서는 초판과 다르게 문장 가운데 포함시켜 괄호 안에 배치했던 참고자료 제시가 별도의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면에서, 편집상의 가독성을 높여주고 있으니 분명하게 독자를 위한 배려를 강하게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주어진 참고자료를 언급하는 표현들이 온통 약어들로 가득 차 있는 상황은 그대로이다. 물론 언어학의 전문용어에 대한 이해와 중세인도어의 자료들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경우, 약어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이것은 본인이 중세인도어 자료를 다루고자 한다면 배워나가야 할 학습의 내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 그리고 초심자라면 21-33쪽에 있는 약어 목록을 대조해 가면서 읽어야 할 것이다. 이 약어 목록들은 실제로 국제학계가 공유하는 경우가 많고 전문연구자라면 익혀야 할 내용들이어서 천천히 익숙해지도록 노력할 가치가 있다.¹⁴⁾

14) 넓게는 인도고전학 좁게는 인도불교 분야에 연관되는 수많은 약어들을 파악하는 것도 상당한 경험과 시간을 요구하는 것이 사실이다. 주요 학술지나 주요 원전 텍스트들의 관례화된 약어들이 있으니 만큼, 약어들의 구성방식에 대한 일정 정도의 이해가 얻어지고 나면 심각하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본다. 빠알리 문헌비평 사전(Critical Pāli Dictionary)에 포함된 약어 통합 목록(Consolidated List of Abbreviations)은 온라인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https://cpd.uni-koeln.de/intro/vol3_consolidated_list_of_abbreviations (2021.06.16 확인). 이와는 다르게 인도불교학 분야 전반에 걸친

IV. 한국의 독자들을 위한 제안

그렇다면 이렇게 접근이 어려운 자료를 한국의 독자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몇 가지 실용적인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선 독일어로 된 책인 지라 독일어를 아주 느리게라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자료를 읽는 것은 사실 어렵지가 않다. 온통 중세인도어 단어들과 전문용어와 참고자료들과 학자들의 이름 사이에, 조금 과장하자면, 가끔씩(!) 독일어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급 수준의 독일어를 배운 독자들이라면 천천히 필요한 단락만 읽어 나가면 될 것이고, 그 일이 독일어 자체 때문에 크게 어려운 경우는 드물다. 그리고 바로 이런 사정 때문에 *Mittelindisch*가 앞으로 영어 혹은 한국어로 번역되기를 기대하기는 난망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따라서 인도중세어나 초기불교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라면 *Mittelindisch*를 활용할 수 있는 연습을 조금씩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필자는 확신한다.

독일어 초급 문법을 두세달 안에 배울 수 있는 사교육 체계가 갖추어진 한국에서 독일어 문법을 배우는 일 자체보다 더 어려운 문제는 수많은 약어들과 중세인도어 형태들이 섞여 있어서 해당 분야의 기초지식이 없이 서술 내용에 대한 감을 잡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이 때 우선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은 *Mittelindisch*가 소설책도 아니고 또 일반적인 저작들처럼 앞에서 뒤로 읽어 내려갈 독자를 염두에 둔 책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필요한 대목들을 찾아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얻으면 되는 책이라는 말이다. 이 말은 이 책이 독자들을 위해 제공하는 가장 큰 가독성을 위한 도움은 장황한 서술이나 긴 설명이 아니라 바로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일에 도움을 주는 찾아보기라는 뜻이다. 그리고 제2판은 확장된 찾아보기 덕에 그 활용도가 더욱 높다.¹⁵⁾ 따라서 독자들은 찾아보기를 이

약어들을 정리한 작업은 베헤의 단행본이 있다: Heinz Bechert hrsg. *Abkürzungsverzeichnis zur buddhistischen Literatur in Indien und Südostasien*. Sanskrit-Wörterbuch der buddhistischen Text aus den Turfan-Funden, Beiheft 3.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0. 이 단행본도 온라인으로 이용 가능하다: https://digi20.digitale-sammlungen.de/de/fs1/object/display/bsb00040432_00001.html?context=weitere&leftTab=vector (2021.06.16 확인).

15) 제머슨(Stephanie W. Jamison)이 서평(*JAOs* 123.2 (2003) 467)에서 지적하듯 제2판에서는 초판에

용해서 자신이 관심을 가진 주제 혹은 텍스트 혹은 단어를 찾아 내서 해당하는 길지 않은 본문을 읽어 나가며 천천히 상황을 파악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해당하는 대목을 찾아 정보를 얻고자 하는 단계가 되면, 너무나 짧은 서술과 아주 많은 참고자료 목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인 경험이다. 우선 언급되는 자료들을 구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자료들을 구하는 것이 또다시 큰 문제로 다가온다. 최소한 몇 년 전만해도 이 문제는 아주 심각했다. 도서관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학술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영미권과는 다르게 온라인으로 제공되지 않았던 유럽의 오래된 권위 있는 학술지들이 몇 년 전만해도 너무나 많았다. 특히나 출간 연도가 오래된 논문들의 경우 어려움은 더 컸다. 하지만 지금은 독일어나 프랑스어 학술지들의 경우에 그리고 몇몇 이탈리아어 학술지도, 많은 수가 쉽게 온라인으로 접근 가능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독일동방학회지』(ZDMG)만 해도 1847년 1호부터 2013년 163권까지 쉽게 원본을 볼 수 있다.¹⁶⁾ 그리고 그 외의 찾기 어려운 자료들은 “Kleine Schriften”(소품논집)들에서 찾아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예로 폰힌위버의 수많은 논문들도 여러 학술지와 잡지에 흩어져 있어 확보가 어려웠지만, 글라제납재단(Glasenapp-Stiftung)에서 발간하는 “Kleine Schriften” 시리즈 안에 폰힌위버의 글들을 모은 세 권이 포함되면서 2009년 이후로는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2009년 폰힌위버의 70회 생일을 맞아 두 권의 Kleine Schriften이 발간된 이후에¹⁷⁾ 또다시 2019년 80회 생일을 맞아 세 번째 권이 발간되었다.¹⁸⁾

있었던 오래된 참고자료 목록의 내용이 일부 삭제되었는데, 만약 특정한 주제에 대한 연구자 자체를 명확하게 추적하고자 하는 연구자라면 초판을 동시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16) <https://menadoc.bibliothek.uni-halle.de/dmg> (2021.06.15 확인).

17) Oskar von Hinüber. *Kleine Schriften*, Harry Falk und Walter Slaje eds., Veröffentlichungen der Helmuth von Glasenapp-Stiftung 47 2 Bde. Wiesbaden: Harrassowitz Verlag, 2009.

18) Oskar von Hinüber. *Kleine Schriften III*, Harry Falk, Haiyan Hu-von Hinüber und Walter Slaje, eds., Veröffentlichungen der Helmuth von Glasenapp-Stiftung 49. Wiesbaden: Harrassowitz Verlag, 2019. 제 3권에는 2006년부터 2017년 사이의 글들이 담겨 있는데, 여기에 실리지 않고 별도로 모음집이 기획된 글들도 있다. 특히나 제3권에는 세밀한 찾아보기 부분이 있어서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 있다. 참고로 이 책을 소개하는 Harrassowitz 출판사의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https://www.harrassowitz-verlag.de/titel_5866.ahtml) 이 Kleine Schriften의 목차 페이지는 물론이고

독일어를 전혀 읽지 못하는 독자라면 한문이나 일본어를 읽지 못하는 서구 연구자들이 택하는 독해법을 시도해 볼 만하다. 즉 언급되는 인도중세어 어형이 무엇이고, 거기에 언급된 다른 참고자료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독해 가능한 전문용어들만으로 나름대로의 상황파악을 시도해 보는 것이다. 폰힌위버의 서술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주제의 연구사와 논점을 파악하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시간 투입 대비 얻는 정보의 효율성을 고려해야 할 것인데, 독일어를 읽지 못하는 독자라고 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얻을 것이 상당히 많다고 본 서평자는 생각한다. 단, 중세인도어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에 따라 효율성이 크게 달라질 것은 각오해야 한다. 이 말은 초보자에게 권할 만한 선택지는 아닌 셈이다.

이와 다르게 한국적인 맥락에서 빠알리에 관심이 있지만 빠알리 텍스트 전반에 대한 나름대로 믿을 만한 정보를 파악하고 최근 연구의 성과에 대해 알고 싶다면 폰힌위버의 *A Handbook of Pali Literature* (Berlin: de Gruyter, 1996. ISBN: 3-11-014992-3)를 활용하기를 권한다. 그리고 국내에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연관된 저술로는 Oskar von Hinueber, *Entstehung und Aufbau der Jataka-Sammlung. Studien zur Literatur des Theravada-Buddhismus I. Abhandlungen der Akademie der Wissenschaften und der Literatur*. Stuttgart: Franz Steiner Verlag. 1998도 권하고 싶다. 기계적인 구분과 도식적인 이해를 전제하는 상상속의 구도가 아니라 실제로 불교 경전이 편찬되는 과정 안에 분다 전생이야기(Jātaka/本生譚)가 어떻게 자리잡고 있으며 어떤 역할을 해 냈고, 또 어떻게 독립된 텍스트로 구축되고 확장되었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설명이 잘 제시되어 있는 책이다.

폰힌위버의 모든 출간물을 파악해 놓은 47쪽에 달하는 저작 목록도 확인이 가능하다. 같은 저작 목록의 내용을 웹페이지로 제공하는 Freiburg대학의 IRIAABS 웹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다.